

# 혜초 스님 기념비 中 산시성에 세운다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신라 고승 혜초스님(704-787)을 기리는 기념비가 중국 산시성 주지현 선유사(仙遊寺)에 세워진다.

조계사(주지 자축)가 비용을 지원해 세우는 이 기념비는 3m 높이로, 앞면에는 '신라국 대덕고승 혜초기념비' 글씨가 한글과 한문으로, 뒷면에는 혜초스님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된다.

조계사는 2월 26일 재무 원명 스님을 대표로 하는 답사단을 선유사로 파견, 선유사 문물관리소장 왕톈빈(王殿斌)씨와 혜초기념비 제막식을 오는 6월 13일 선유사 이전복원 착공식때 함께 봉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의 수교(1992년) 이후 중국에서 활약한 국내고승의 기념비를 한국불교계가 건립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비 제막으로 중국의 국보급 사찰 선유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혜초스님의 업적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중진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불교학자, 신도 등 한국불자들이 대거 동참하며 중국 시안의 법문사, 대홍선사, 지상사 등 유명 사찰의 방장, 주지 등 중국불교계 지도자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답사에서 선유사 문물관리소는 국보급 사찰인 선유사 경내에 세워지는 혜초기념비 제막의 뜻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비정(碑誌)의 현판글씨를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로 받고 싶다고 우리 측에 공식 요청했다.

선유사는 산시성(陝西省) 주지현(周至縣) 남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흑하(黑河)에 있으며 수나라 문제때 황제의 피서행궁으로 시작된 절이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이곳 관리로 근무할 때 '장한가(長恨歌)'를 쓴 장소로 유명한 이 절은 지난 98년 탐험왕탐에서 부처님진신사리 13과와 많은 중요 유물이 발견되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 기우제 지낸 옥녀담 | 조계사서 비용 후원 댐건설로 수몰위기 | 선유사 6월13일 제막

이 풍광 좋고 유서깊은 사찰이 개발정책에 따라 인근 흑하의 물길을 끌어들이기 위한 댐공사로 2003년이면 수몰된다. 법왕담은 현재 남아있는 수나라 시대 전담으로는 유일해 중국정부가 흑하에서 높이 30m정도 떨어진 언덕에 선유사를 이전복원하기로 하고 현재 터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혜초스님이 당나라 황제 대종(代宗)의 명으로



서깊은 현장이 그대로 수몰될 처지에 놓였다가 조계종의 지원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새로 짓는 선유사에 옮겨지게 된 것이다. 현재 혜초스님이 기우제를 지냈던 바위는 너무나 커 7조각으로 나눠 선유사 문물관리소에 옮겨져 있다.

선유사 혜초기념비 제막을 계기로 중국불교문화사에 크게 영향을 끼친 우리나라 고승들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관련 유적지를 발굴하는 일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혜초스님처럼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서 입적한 스님들에 대해 국내 연구가 소홀하고 다소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도리어 그들을 중국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친 고승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업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로 사대주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는 한 방향도 된다는 것이다. 시안 불교유적 답사에 동참한 변인석교수(전 아주대 인문학부)는 "중국에는 우리나라 스님들과 관련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지만 관광객들은 물론 학자들조차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라면서 "중요한 유적지에 공덕비나 기념비를 세워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심고, 외국에 있는 우리 관련 문화재복원에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자국스님이 관련된 곳곳에 행적비를 세우며 중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현장스님의 역경사업에 힘입으로 활약해 기록에 남겨진 우리나라 스님만도 10여명 이상. 이들은 단순히 보조역할이 아니라 필수, 중문, 중의, 운문 등 신스(新書)와 중국어를 다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지혜와 수행력의 소유자로 중국문화 창흥에 혁혁한 공헌을 했기에 그 스님들의 업적을 조명하고 공덕을 기리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것이다.

중국 산시성 = 이경숙 기자

(gelsee@buddhapia.com)

### 시안(西安)의 주요 불교유적

#### ▲법문사(法門寺)

산시성 부종현 법문진에 있다. 당 황실의 사찰이었던 만큼 많은 진귀한 문화재가 발굴됐는데 특히 유명한 것이 부처님 진신지골(指骨) 사리이다. 동한(東漢)의 회평연간(172-177)에 부처님의 지골을 안치한 탑을 세웠다고 전한다. 수(隋)의 개황연간(581-592)에 중창되고 625년 무우왕사에서 법문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북위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조정과 황실이 법문사의 9차레나 불지골사리를 친견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비록 황제라 해도 불지골사리 친견은 용이하지 않았으며 황제들은 친견후 금과 보석 등 진귀한 보물로 사리함을 새로 만들어 부처님께 바쳤다. 법문사박물관에서는 세공의 아름다운 9개의 사리함 모습을 볼 수 있다.

#### ▲대자은사(大慈恩寺)

648년 건립된 절로 시안 시내에 있다. 시안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대안탑은 현장스님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봉안하기 위해 652년 건립해 1335권의 불경을 봉안했다고 전한다. 처음에는 5층이었다가 10층으로 증축되고 병화로 일부 허물어졌다가 다시 복구되어 현재는 높이 64m, 둘레 25m의 7층탑이다.

#### ▲홍교사(興教寺)

장안현 위구에서 두곡으로 이어지는 동쪽 소동원에 있다. 현재의 사찰은 청말에 복원된 것으로 현장스님의 탑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신라승원 촉탑, 오른쪽에 규기탑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홍교사에서 공부한 신라승은 도중(道忠), 신파(神妙), 의적(義寂), 도륜(道倫), 신방(神防), 지인(智仁), 현방(玄范), 승장(勝由) 등으로 이름이 남긴 역경. 찬소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신방은 20년간 현장절에 머물며 역경사업을 이끌었다.

#### ▲초당사(草堂寺)

시안으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있다. 초당사가 동진때 창건된 절로 후진(後秦)때 구자의 고승 구마라집(鳩摩羅什)이 경전을 번역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정문 왼쪽에는 29m 높이의 구마라집 사리탑이 있다. 구마라집이 이곳에 초막을 지어 역경원을 설치해 불경을 번역했다고 해 '초당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지상사(至相寺)

의상이 8년간 주석하며 화엄을 공부했던 곳이다. 의상스님이 걸어다녔을 포불포불한 산길을 신도들이 현재도 다니고 있다. 신라승인 승전, 무염, 효흥, 도당 스님 등이 지상사에서 공부했다고 전한다. 대대적인 중창불사중에 있다.



홍교사 원촉탑 신라스님 공부장소



부처님 지골사리 법문사 2세기 봉안



구마라집 사리탑 경전 번역 사찰

### 인/터/뷰



## “중국 영향 준 한국스님 재조명 절실”

### 기우제 바위 찾아낸 변인석 교수

“일본스님들은 그저 슬쩍 구경만 하고 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중국 역사상 문화창흥에 끼친 공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절 곳곳에 자기네의 기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스님들은 중국인과 함께 문화창흥에 직접 동참했고 상당한 업적도 남겼음에도 유적지에 그 흔한 기념비 하나 없는 점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중국 국보급 사찰인 선유사에 조계사가 혜초스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 무척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5년전 안강에 신라사지(新羅寺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의 몇 개 대학 박물관장들이 답사를 가게 되어 가기 전에 자료조사차 <신수대장경>에 '신라사'가 있는가 해서 색인을 찾다가 혜초가 지은 <하옥녀담기우표(賀玉女潭祈雨表)>를 발견했다는 변인석 교수(전 아주대 인문학부)는 이를 확

인하러 98년 중국으로 현장조사를 떠났다. 그때 혜초스님의 유적지를 발견했으나 댐공사로 수몰된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 귀국후 문화관광부를 찾아가 기념비를 세우자고 요청했다. “복합운동 장소는 복구비를 지원하지만 스님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낙담하다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던 고산스님을 뵈고 사정을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계사와 연결을 시켜주셨지요”

중국 시안만도 22차례나 가서 유적을 답사해온 변인석교수는 이러한 연구물을 모아 지난해 <당장안의 신라유적>이라는 책을 펴내며 당시 활약했던 신라고승들의 행적을 발굴해 냈다.

중국 섬서사범대 교수와 서북대학 국제당문화중심 연구원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내 사적을 좀 더 현장답사해 <신라승이 머문 중국 명산 사찰> <실크로드와 신라인> 등의 연구서를 펴낼 예정이다.

# 신사년 삼사 성지순례

## 윤장대 원(願)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왕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화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각불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살려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여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불자님들을 위하여 윤장대를 공개하여 성지를 참배하고 윤장대에 원(願)을 실어 돌려면서 업장을 녹이고 부처님의 위적을 기리는 삼사성지순례 및 방생법회는 부처님의 황기가 서려있는 용문사에서 시작하여 보십시오.

주지 청안 합장

###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 우편번호 757-842  
 문의 : (054)655-8695, 655-1011, 655-1010  
 팩스 : (054)655-8405

▶ 삼사성지순례 및 방생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찰에서는 연락을 주시면 용문사 안내프렛을 보내드립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 부산→용문사 버스편: (051)817-8012~3, 011-9530-6930(태평양고속관광)